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은행주가 대안

하반기에도 이익모멘텀과 주주친화정책 강화 지속 예상

국내외 금리인하 및 경기둔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최근 주가 변동성도 확대되어 투자자 또한 주식투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증시가 기침하면 한국증시는 감기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를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8월 이후 주가약세를 수반한 주식시장 변동폭 확대에도 국내 은행주 주가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는 1) 1H24 양호한 실적(+0.8%yoy)을 크게 상회하는 2H24 실적 모멘텀(+24.1%yoy)과 2) 2Q에 이어 3Q 실적 발표에서도 보다 강화된 주주환원정책 발표 전망 3) 3Q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4Q ETF 개발 등에 대한 정책 기대 등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우려와 달리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주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합니다. NIM 하락에 따른 수익성 부담은 있으나 2023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 우려에 따른 경상적 대손비용 부담 축소와 2020년 이후 증가한 선제적 충당금적립 완화 가능성이 보다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2024년 주가상승에도 PBR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주주친화정책 확대에 따른 높은 배당수익률,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급 개선 감안하면 주가의 하방경직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글로벌 주요 은행과 비교하여도 국내 은행주 투자매력 유효

2024년 KOSPI 수익률 -4.5%ytd로 글로벌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과 비교하면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내 은행주는 +35.0%ytd 상승하여 글로벌 주요은행 대비로도 양호한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프로그램'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Valuation 기준으로 국내 은행주 평균 ROE 9.3%로 글로벌 주요은행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PBR 0.4배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벤치마크인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시행 이후 은행주가 +93.3% 상승하였음을 감안하면 일본 은행주 대비 양호한 펀더멘털 비교시 추가 상승여력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하반기 이익모멘텀,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 상향과 이에 따른 수급개선 가능성, 세계 혜택과 지수 및 ETF 개발 등 정부 정책 기대감, 글로벌 기준으로도 낮은 PBR 감안하면 불확실한 국내외 시장 상황에서 투자대안으로 은행주 매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인

은행/증권/보험
kifire@bnkfn.co.kr
(02)3215-1541

1.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 순매수로 수급 개선되면서 은행주도 상승

1/17일 대통령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언급 이후 은행주는 정책당국의 적극적 지원방안 발표와 이에 부응한 은행의 적극적 주주환원에 따라 주가수익률 +46.5%로 KOSPI 수익률 +4.4% 대비 +42.0% Outperform 중이며, 개별종목 기준으로는 KB금융이 63.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DGB금융은 오히려 -1.6% 하락중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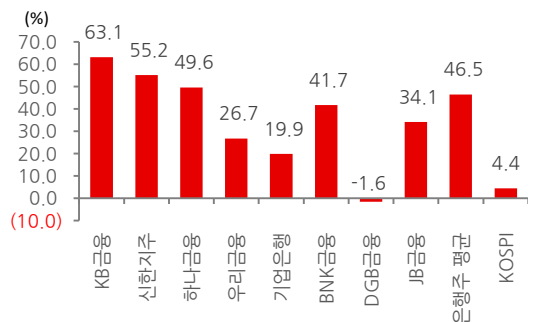
수급측면에서도 2024년 기관투자자 KOSPI 누적 7.9조원 순매도 대비 은행주 1.8조원 순매수 중, 외국인투자자는 KOSPI 19.4조원 순매수 대비 은행주 1.4조원 순매수로 KOSPI 내 은행주 비중 5.1% 대비 높은 6.6% 순매수 중임. 개별은행주 기준으로는 기관투자자는 신한지주를 9,187억원, 외국인투자자는 우리금융을 6,678억원 순매수 중인 상황

Fig.1: 밸류업 프로그램 언급 이후 은행주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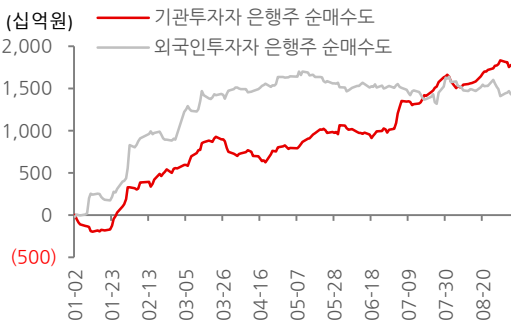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1: 은행주 등락률은 당사 커버리지 기업 1/17일 증가 대비 9/6일 증가 및 시가총액 합산기준

Fig.2: 밸류업 프로그램 언급 이후 개별 은행주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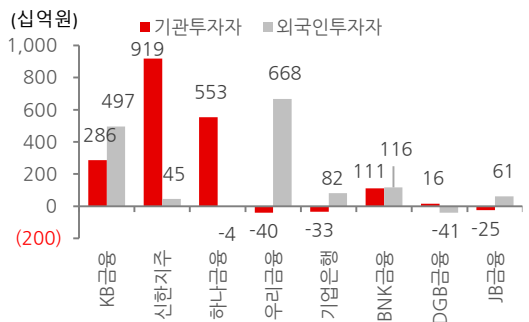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 1/18일부터 9/6일 증가기준

Fig.3: 2024년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순매수도 추이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1: 2024년 순매수도 기준

Fig.4: 2024년 개별은행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순매수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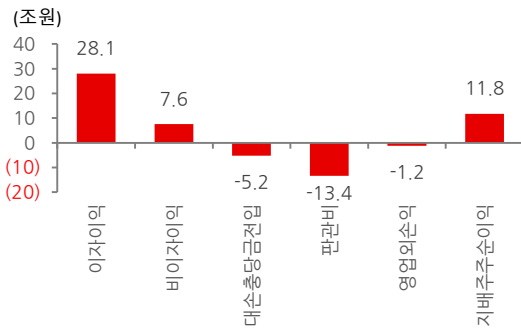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1: 2024년 순매수도 기준

2. 2024년 상반기 ELS 배상비용 및 부동산PF 개별평가 부담에도 양호한 실적 실현

1H24 상장은행 지배주주순이익은 +0.8%yoy인 11.8조원 실현하여 전반적으로 당사 및 시장 예상치 상회. 이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의 영업외 ELS 배상비용 8,000억원이 반영되었음에도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 증가와 대손충당금전입 감소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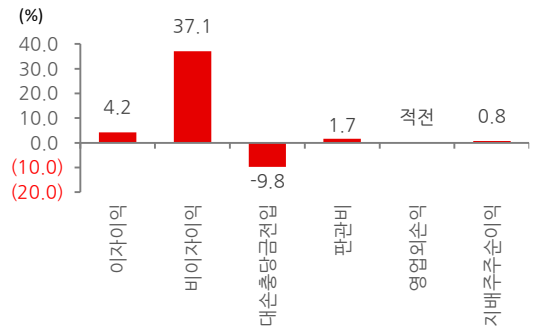
분기 NIM은 1Q23 이후 완만한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특히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출성장과 주택담보대출 수요증가로 예상과 달리 1H24 큰 폭의 원화대출 성장(+7.5%yoy)에 따라 이자이익 +4.2%yoy인 28.1조원 실현. 더불어 수수료이익 일부 회복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관련손익 개선으로 비이자이익(+37.1%yooy)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부실채권매각이익 증가도 일부 반영). 특히 경상적 대손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이나 1H23 선제적 충당금 1.8조원에서 1H24 부동산PF 개별평가에 따른 선제적 충당금적립에도 불구하고 1.0조원 축소되면서 대손충당금전입도 -9.8%yoy 감소하였음

Fig.5: 1H24 상장은행 주요부문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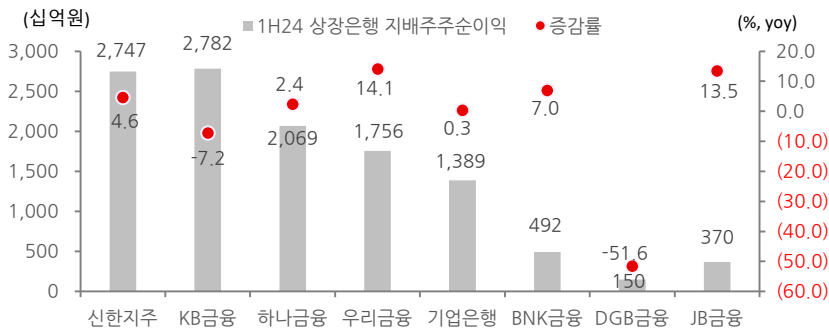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6: 1H24 상장은행 주요부문 실적 증감률 현황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7: 1H24 상장은행 지배주주순이익 및 증감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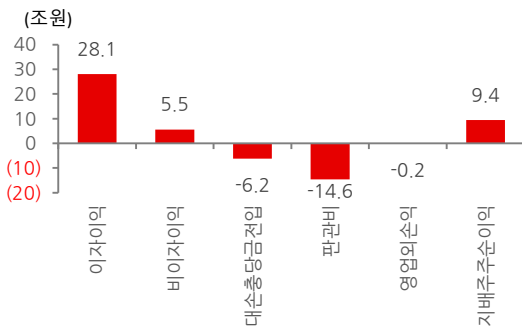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3. 상반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 하반기 지배주주순이익 +24%YoY로 이익모멘텀 예상

2H24(E) 상장은행 지배주주순이익은 +24.1%yoy인 9.4조원 예상. 비이자이익 큰 폭 증가와 대손충당금전입 감소, 상생금융비용 소멸효과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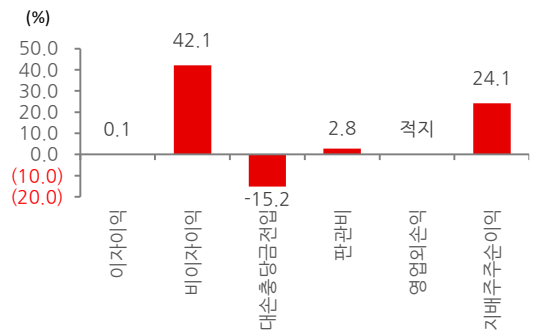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예상으로 NIM 하락 폭 확대될 전망. 더불어 상반기 높은 원화대출성장 대비 하반기 RWA 관리를 위한 성장 축소가 예상되면서 이자이익증가율은 +0.1%yoy로 크지 않을 전망.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 추세 지속에 따라 유가증권, 특히 채권 Exposure 확대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 증가와 자회사 전반적으로 수수료이익도 양호할 전망이어서 전년 동기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비이자이익 +42.1%yoy 큰 폭 증가 예상. 특히 2H23 2.9조원의 선제적 충당금적립 등에 따른 역기고효과와 2Q24 부동산PF 기 적립 등을 감안하면 보수적 추정을 가정하여도 대손충당금전입 -15.2%yoy 예상

Fig.8: 2H24(E) 상장은행 주요부문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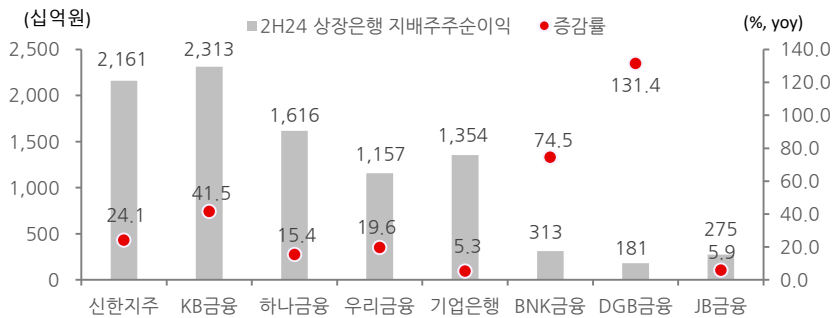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9: 2H24(E) 상장은행 주요부문 실적 증감률 현황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10: 2H24(E) 상장은행 지배주주순이익 및 증감률 현황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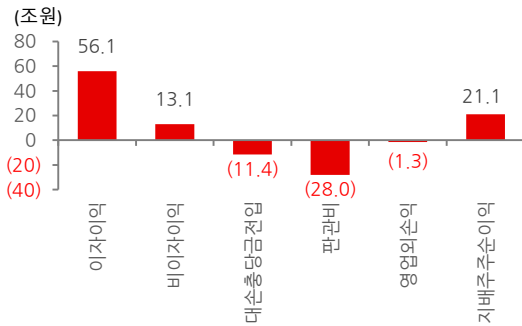
3. 하반기 이익모멘텀 확대에 따라 2024년(E) 지배주주순이익 +10%YoY 예상

2024년(E) 상장은행 연간 지배주주순이익은 하반기 이익증가율이 확대되면서 +10.0%yoy인 21.1조원 예상.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 증가와 대손충당금전입 감소, 상생금융비용 소멸에 기인

분기 NIM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여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2Q24 부터 하락하기 시작. 더불어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됨에 따라 10월 한국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고하저로 추가 하락 불가피. 대출성장도 상반기 선제적 성장 대비 하반기 RWA 관리를 위한 적정성장 감안시 성장 축소에 따라 연간 이자이익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그럼에도 양호한 비이자이익 증가와 특히 선제적 대손충당금적립(3Q23 4,213억원 및 4Q23 2.4조원, 2Q24 누적기준 약 10.9조원 적립 중) 축소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 감소, 상생금융비용(4Q23 1.7조원 중 1.3조원 비용 처리) 소멸효과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축소 우려보다는 연체를 하락 리스크 축소에 따른 향후 대손비용 감소 기대가 보다 클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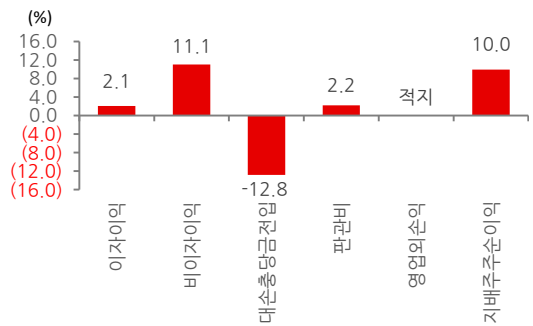
개별은행 2024년(E) 지배주주순이익 기준으로는 2023년 일부 기저효과가 반영된 측면도 있으나 BNK금융 +25.9%yoy 및 신한지주 +12.4%yoy로 가장 높은 전망이며, 증권자회사 대규모 충당금적립으로 DGB금융은 -14.8%yoy를 예상

Fig.11: 2024년(E) 상장은행 주요부문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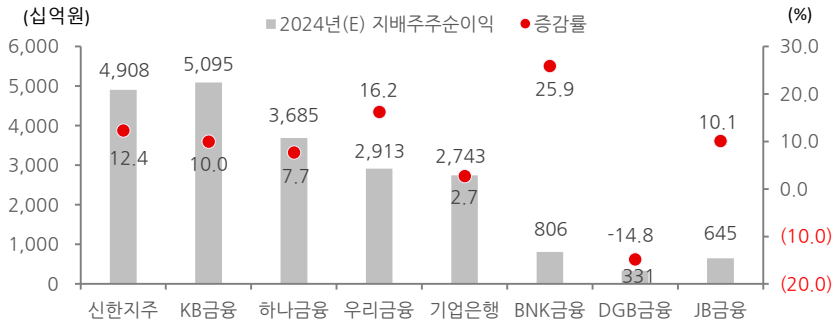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12: 2024년(E) 상장은행 주요부문실적 증감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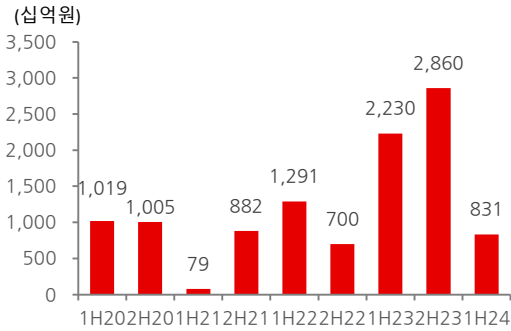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13: 2024(E) 상장은행 지배주주순이익 및 증감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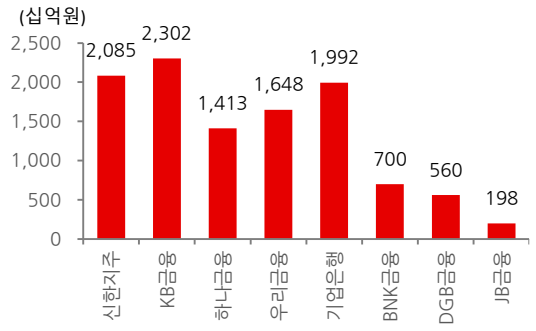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14: 상장은행 선제적 총당금적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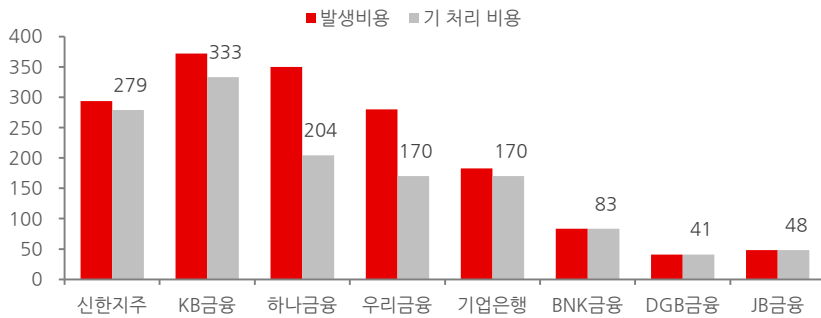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15: 상장은행별 누적 선제적 총당금적립 현황



자료: 각 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NK투자증권

Fig.16: 4Q23 기준 상장은행 상생금융비용 반영 현황



자료: 각 은행, BNK투자증권

4. 상향된 주주친화정책 발표와 밸류업 지수 및 ETF 개발 발표 예정으로 불확실한 주식 시장의 대안주로서 은행주 제시

2Q24 실적발표 후 신한지주 및 우리금융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향된 주주친화정책 발표

신한지주는 목표 보통주자본비율 13%+ α 제시. 2Q24 13.1%인 현 수준에서는 주주환원 36~40% 및 2027년 이후 50%까지 확대 목표. PBR 1배 미만에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보다 집중하면서 2025년부터는 낮은 배당수익률 감안 점진적으로 총배당금도 확대할 계획. 2024년 보통주 500백만주 미만(2Q24 기준 509.4백만주) 및 2027년까지 450백만주로 감축 목표 제시. 이를 감안하면 2023년 총주주환원을 36.3%에서 2024년 최소 37.7%(자사주 매입 및 소각 1Q 1,500억원, 2Q~3Q 3,000억원 기 발표, 4Q 추가 3,000억원 내외 가정하여 총 7,500억원 예상. 주가 상황에 따라 변동) 상향 예상. 2027년까지 보통주 50백만주 감소 계획 감안하면 2025년부터 연간 약 1조원 매입 및 소각 예상(최근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추가하락 감안하여도 3년간 500백만주*56,100원(9/8일 종가기준)=2.8조원 필요)과 총배당금의 완만한 확대(배당성향 20% 초반) 감안하면 총주주환원을 40% 중반까지 가능할 전망

우리금융지주도 보통주자본비율 및 총주주환원을 1) 11.5~12.5% → ~35% 2) 12.5%~13.0% → ~40% 3) 13.0 상회 → ~50% 제시. 현 수준(2Q24 보통주자본비율 12.0%)에서는 총주주환원을 35%까지 가능(총주주환원을 2023년 33.8%(자사주 매입 및 소각 4.0%인 1,000억원 + 배당성향 29.8%인 주당 1,000원) → 2024년(E) 34.5%(자사주 매입 및 소각 4.7%인 1,300억원 + 배당성향 29.8%인 주당 1,170원 예상). 더불어 총주주환원을 40% 이내시 현금배당 30% 수준 실시와 초과분은 전액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예정. 40% 초과시 현금배당도 30% 초과 계획(우리사주 지분 9.3%로 상대적으로 현금배당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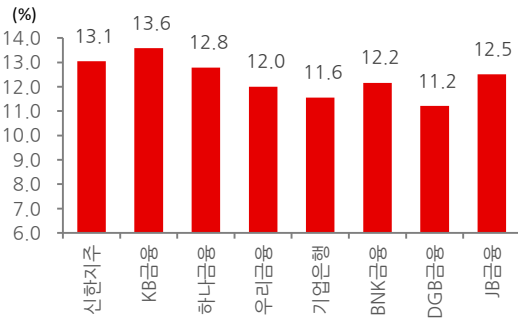
3Q24 실적발표시 보통주자본비율이 가장 높은 KB금융(2Q24 기준 13.6%)과 하나금융(2Q24 기준 12.8%)도 보다 강화된 주주친화정책 발표 예상. 2Q24 실적발표 이후와 마찬가지로 주가상승 모멘텀 가능할 전망

더불어 구체적인 지수산정 기준은 미확정이나 3Q24 증권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은행주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4Q24 ETF 개발 및 이에 따른 수급개선, 은행의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상황 고려하면 수급측면에서도 긍정적

특히 주가상승에도 여전히 낮은 PBR과 높은 배당수익률 감안하면 주가의 하방경직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시기에 대안으로 은행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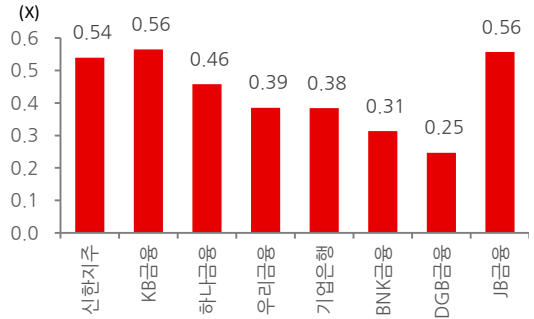
최선호 종목으로는 **신한지주**(2024년(E) 지배주주순이익 +12.4%yoy인 4.9조원, PBR 1배 미만)에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집중 및 2025년 이후 3년간 총주주환원률 40% 증반 예상, PBR 0.54배에 불과)와 **BNK금융지주**(2024년(E) 지배주주순이익 +25.9%yoy인 8,055억원 예상, PBR 0.31배에 불과) 제안

Fig.17: 2Q24 상장은행 보통주자본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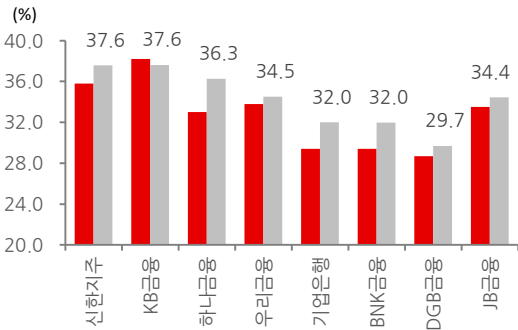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BNK투자증권

Fig.18: 2024년(E) 상장은행 PBR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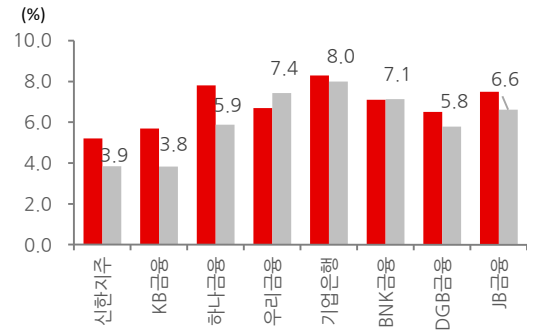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BNK투자증권
주1:9/9일 종가기준

Fig.19: 2024년(E) 상장은행 예상 총주주환원률



자료: 각 은행, BNK투자증권
주: 총주주환원률은 배당성향 및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합산 현황. 일부 은행은 매입 후 소각이 없었으나 향후 자사주가 배당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총주주환원률에 산입. 더불어 2024년(E) 지배주주순이익에 따라 변동 가능

Fig.20: 2024년(E) 상장은행 예상 배당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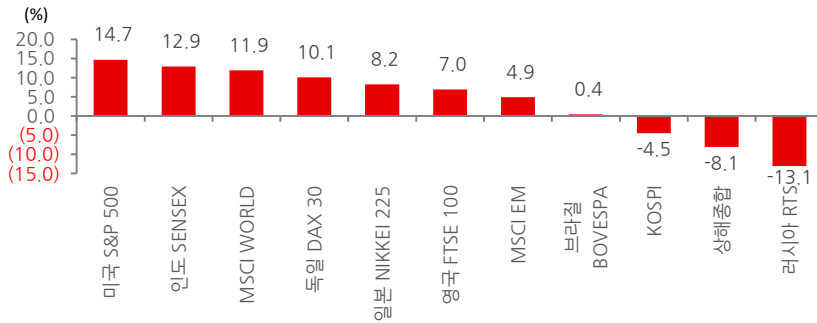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BNK투자증권
주1:9/9일 종가기준이며, 분기 및 반기 포함 연간 주당배당 기준. 향후 주가, 지배주주순이익 및 주당배당에 따라 변동성 존재

5. 글로벌 은행과 비교하여도 여전히 국내 은행주는 저평가 상황

2024년 국내 KOSPI 수익률 -4.5%ytd로 경기둔화에 따른 상해종합지수와 전쟁에 따른 러시아지수를 제외하면 글로벌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대비 가장 부진한 상황. 반면 국내 은행주는 +35.0%ytd 상승하여 양호한 수익률 실현 중. 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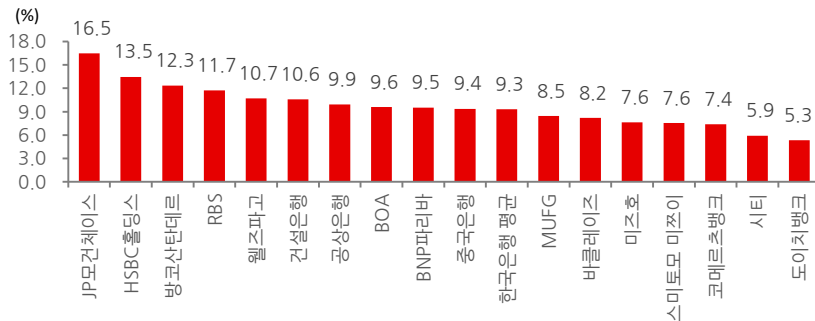
Valuation 기준으로 국내 은행주 평균 ROE 9.3%로 글로벌 주요 은행 대비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PBR은 0.4배에 불과하여 글로벌 은행주 대비 가장 낮은 수준임

Fig.21: 2024년 KOSPI 수익률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대비 부진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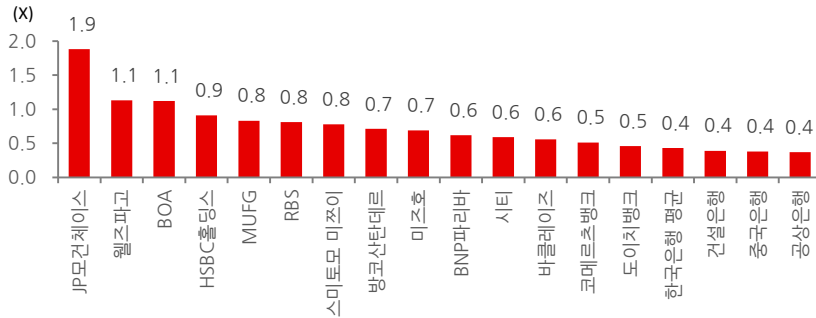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9/9일 종가기준

Fig.22: 2024년 글로벌 선진국 및 신흥국 주요 은행 ROE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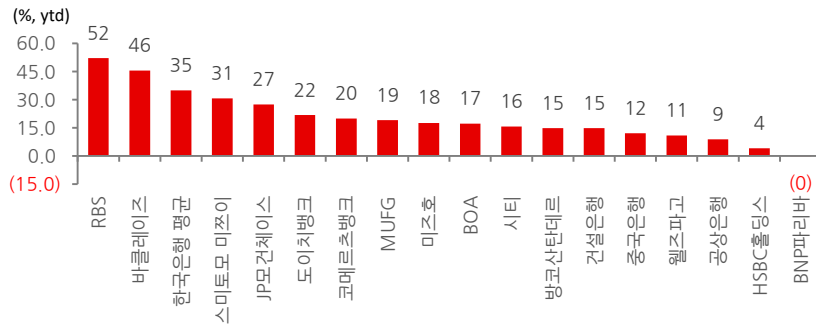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2024년(E) 기준으로 국내은행 평균은 당사 커버리지 상장은행 8개사 산술평균 기준임

Fig.23: 2024년 글로벌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은행 PBR 현황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국내은행 평균 PBR은 당사 커버리지 상장은행 8개사 산술평균 기준임

Fig.24: 2024년 글로벌 선진국 및 신흥국 주요 은행 주가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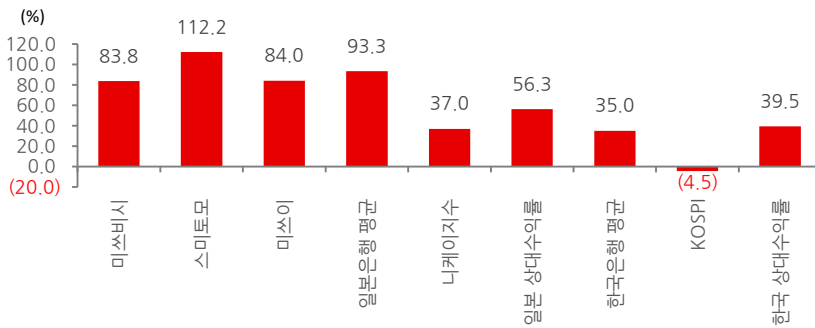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1: 국내은행 평균 주가상승률은 당사 커버리지 상장은행 8개사 시가총액 합산 기준임
 주2: 9/9일 종가기준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벤치마크인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은 시행 이후 일본 은행주 평균 +93.3% 상승하여 NIKKEI 225 +37.0% 상승 대비 +56.3% Outperform 중

국내 은행주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확실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기에도 투자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Fig.25: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시행 이후 추가수익률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1: 9/9일 종가기준

주2: 일본 상대수익률 = 일본은행 평균수익률-니케이지수 수익률, 한국 상대수익률=한국은행 평균수익률-KOSPI 수익률

주3: 한국은행 평균수익률은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시가총액 합산기준

〈신한지주〉

연결대차대조표(IFRS연결기준)

(단위:십억원)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자산총계	675,884	691,795	731,297	763,325	796,755
현금 및 예치금	29,634	34,764	36,749	38,358	40,038
유가증권	174,839	194,540	205,648	214,655	224,056
대출채권	414,681	413,498	437,109	456,253	476,234
유형자산	4,011	3,972	4,199	4,383	4,575
기타자산	52,719	45,021	47,592	49,676	51,852
부채총계	624,754	635,473	672,078	699,989	729,200
예수금	383,433	381,932	403,932	420,707	438,263
차입금	58,323	66,148	69,958	72,863	75,904
사채	77,336	81,562	86,260	89,842	93,591
기타부채	105,662	105,832	111,928	116,576	121,441
자본총계	51,130	56,322	59,219	63,336	67,555
자본금	2,970	2,970	2,970	2,970	2,970
자본잉여금	12,095	12,095	12,095	12,095	12,095
이익잉여금	33,343	36,387	40,201	44,318	48,537

주요투자지표 I (IFRS연결기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주당지표(원)					
EPS	8,866	8,474	9,696	10,433	10,735
BPS	84,068	96,448	103,939	112,072	120,407
DPS	2,065	2,100	2,160	2,300	2,400
배당성향	22.7	24.7	22.3	22.0	22.4
배당수익률	5.9	5.2	3.8	4.1	4.2
밸류에이션(배, %)					
PER	4.0	4.7	5.8	5.4	5.3
PBR	0.4	0.4	0.5	0.5	0.5
효율성(% , 배)					
판관비/순영업수익	43.9	41.4	40.3	39.9	39.5
레버리지비율	13.2	12.3	12.3	12.1	11.8

연결손익계산서(IFRS연결기준)

(단위:십억원)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이자이익	10,597	10,818	11,279	11,482	11,729
비이자이익	2,271	3,430	3,734	3,844	3,882
순영업수익	12,868	14,247	15,013	15,326	15,611
대손충당금전입	1,318	2,244	2,061	1,987	2,007
판관비	5,644	5,903	6,051	6,112	6,173
영업이익	5,906	6,101	6,900	7,227	7,431
영업외이익	461	-136	-289	-50	-50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7,224	8,345	8,962	9,214	9,438
세전이익	6,367	5,965	6,611	7,177	7,381
법인세	1,611	1,487	1,601	1,794	1,845
당기순이익	4,756	4,478	5,011	5,383	5,536
소수주주지분	90	110	103	102	102
지배주주당기순이익	4,666	4,368	4,908	5,281	5,434

주요투자지표 II (IFRS연결기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수익성(%)					
ROE	10.5	8.8	9.3	9.3	8.9
ROA	0.7	0.6	0.7	0.7	0.7
성장성(%)					
총자산	4.3	2.4	5.7	4.4	4.4
원화대출채권	3.8	3.2	7.0	4.5	4.5
순영업수익	1.4	10.7	5.4	2.1	1.9
영업이익	-0.8	3.3	13.1	4.7	2.8
지배주주당기순이익	16.1	-6.4	12.4	7.6	2.9
건전성(%)					
BIS비율	16.1	16.0	16.0	16.2	16.4
대손비용률(원화대출대비)	0.5	0.8	0.7	0.6	0.6
고정이하여신비율	0.5	0.7	0.7	0.6	0.5
NPL Coverage Ratio	177.0	165.6	151.3	154.3	157.3

〈BNK 금융지주〉

연결대차대조표(IFRS연결기준)

(단위:십억원)	2022A	2023P	2024F	2025F	2026F
자산총계	136,966	145,784	154,374	161,625	170,097
현금 및 예치금	6,213	5,359	5,202	5,446	5,732
유가증권	20,389	25,190	28,070	29,388	30,929
대출채권	104,810	109,383	114,634	120,019	126,310
유형자산	1,211	1,291	1,336	1,399	1,472
기타자산	4,344	4,560	5,132	5,373	5,655
부채총계	126,134	135,110	143,140	149,339	156,750
예수금	101,470	106,761	111,459	116,286	122,057
차입금	8,567	9,925	11,827	12,339	12,951
사채	12,145	13,035	13,983	14,588	15,312
기타부채	3,952	5,389	5,871	6,126	6,430
자본총계	10,832	10,674	11,233	12,286	13,347
자본금	1,630	1,630	1,630	1,630	1,630
자본잉여금	787	787	787	787	787
이익잉여금	6,809	7,122	7,703	8,283	8,871

연결손익계산서(IFRS연결기준)

(단위:십억원)	2022A	2023P	2024F	2025F	2026F
이자이익	2,924	2,906	2,958	2,989	3,076
비이자이익	307	324	449	458	463
순영업수익	3,231	3,230	3,407	3,447	3,538
대손충당금전입	551	953	836	712	719
판관비	1,521	1,476	1,523	1,610	1,666
영업이익	1,159	801	1,048	1,125	1,153
영업외이익	-48	74	47	-10	-10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1,710	1,754	1,884	1,837	1,872
세전이익	1,111	876	1,095	1,115	1,143
법인세	288	197	268	279	286
당기순이익	822	679	827	836	857
소수주주지분	48	39	22	22	22
지배주주당기순이익	774	640	806	814	835

주요투자지표 I (IFRS연결기준)

	2022A	2023P	2024F	2025F	2026F
주당지표(원)					
EPS	2,386	1,986	2,514	2,540	2,606
BPS	27,910	29,479	31,378	34,663	37,973
DPS	625	510	700	730	770
배당성향	26.2	25.7	27.9	28.7	29.6
배당수익률	9.6	7.1	7.1	7.4	7.8
밸류에이션(배,%)					
PER	2.7	3.6	3.9	3.9	3.8
PBR	0.2	0.2	0.3	0.3	0.3
효율성(% , 배)					
판관비/순영업수익	47.1	45.7	44.7	46.7	47.1
레버리지비율	12.6	13.7	13.7	13.2	12.7

주요투자지표 II (IFRS연결기준)

	2022A	2023P	2024F	2025F	2026F
수익성(%)					
ROE	8.6	6.7	8.0	7.3	6.9
ROA	0.6	0.4	0.5	0.5	0.5
성장성(%)					
총자산	6.8	6.4	5.9	4.7	5.2
원화대출채권	6.9	6.2	3.0	4.5	5.0
순영업수익	4.1	0.0	5.5	1.2	2.7
영업이익	6.1	-30.9	30.8	7.3	2.5
지배주주당기순이익	-2.1	-17.4	25.9	1.0	2.6
건전성(%)					
BIS비율	13.7	13.8	14.0	14.2	14.4
대손비용률(원화대출대비)	0.6	0.9	0.8	0.6	0.6
고정이하여신비율	0.5	0.7	1.2	1.1	1.1
NPL Coverage Ratio	219.3	177.9	114.5	119.5	124.5

투자등급 (기업 투자 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 대비 해당 종목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기업: 6개월 예상수익률 / 매수(Buy) +15% 이상, 보유(Hold) -15~+15%, 매도(Sell) -15% 이하
산업: 6개월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 비중확대(Overweight), 중립(Neutral), 비중축소(underweight)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2024.6.30기준) / 매수(Buy) 85.7%, 보유(Hold) 13.5%, 매도(Sell) 0.8%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77-2601 www.bnkfn.co.kr

<본사/영업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1(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별관 3층, 4층 / [본사] T 051-669-8000 / F 051-669-8009
[영업부] T 051-669-8080 / F 051-669-8099

<서울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여의도동) BNK금융타워 6층 / T 02-3215-1500 / F 02-786-2998

<경남영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BNK경남은행본점 1층 / T 055-290-7100 / F 055-290-7199

<울산영업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2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부 1층 / T 052-210-6900 / F 052-271-6111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벤처투자 BNK 씬농구단